

# 이주민 일상에서 드러나는 초국가적 실천방식

- 대구·경북지역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은 정 (영남대학교)  
(anthro@hanmail.net)



## 국문요약

한국사회에 정착한 대표적 이주민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은 예상보다 긴밀하게 떠나온 모국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유입국에서 생활하는데 유의미한 방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주의 역사가 일상적 경험의 차원에서 누적되고 있는 오늘날, 이 글에서는 이주민의 적응 방식의 하나로서 초국가적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주민은 영토적으로는 한 국가에 귀속될 수 밖에 없지만, 경제·사회·심리적으로는 양 국가에 걸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이주현실의 일반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인 적응과 부적응, 통합과 비통합과 같은 단일하고 이분법적인 잣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의 초국가적 실천의 방식으로 송금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실천, 이주민의 모국 방문, 가족·친족의 초청과 연쇄이주, 한국에서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연쇄 이주, 역이주, 송금, 초국가적 실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I. 들어가며

한국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를 주창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일상의 영역에서 이주민을 마주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객관적 지표로서 인구규모만 보더라도 2015년 3월 현재 180만 명을 상회하는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하는 낯선 언어와 문화는 한국의 가족과 친족집단,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상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이주민 수용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적응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적응/부적응, 통합/비통합 등과 같은 단일하고 이분법적인 잣대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주민의 국내 유입이 시작한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가족과 친족, 친구 등을 상상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경험적 역량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대표적 이주민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은 예상보다 긴밀하게 떠나온 모국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유입국에서 생활하는데 유의미한 방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개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이주민들은 어떠한 개별적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이들이 국가 경계를 넘어 수행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적 실천 방식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는 이주민이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시청,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여전히 출신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착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14, 207).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촉발되기 시작한 초국가성의 일면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주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다문화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이주민들이 출신국과 정착국을 넘나들며 국가와 민족, 가족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모호함을 도구화 하여 자신들의 생존 전략으로 구사해내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주민들을 한국에만 귀속된 성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벗어나 전 지구화된 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주체로서 유연하게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출신국과 정착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두 사회에 동시개입되어 있는 주체로 이주민들이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구분규 2013, 14). 이것은 일상화된 국제이주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탈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주민의 초국가적 실천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동화론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주민의 새로운 적응양식으로 초국가주의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초국가주의란 오늘날 이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출신국과 적극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국경을 횡단해서 두 개의 사회를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 연결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초국가주의는 이주민들이 출신국과 정착국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과정(Basch et al. 1994 ; 김혜선 2014, 55 재인용)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이주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이주민들의 경제적 성공이 거주국의 주류사회로 진입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한 사회관계망의 형성이 이주민들에게 대안적 적응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Portes, Guarnizo & Landolt 1999 ; 구본규 2013, 12 재인용).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을 연구한 허오영숙(2013)은 원가족 지원의 방식을 송금, 친지 초청으로 임금노동 기회 제공, 물품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 지원의 구체적 양상과 그를 둘러싼 갈등과 협상을 살펴봄으로써 출신국 가족 지원 행위가 송출국 내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 딸이 받는 압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적·정서적 성취욕구의 결과임을 밝혔다.

김혜선(2014)은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국가주의 현상을 결혼이주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초국가적 가족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결혼이주가족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적 현상을 가족 네트워크, 가족 유대, 송금, 연쇄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경학(2014)은 네팔 이주노동자가 국경 너머 가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양상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네팔의 가족에게 규칙적인 송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면서 정서적 지지, 모국 방문 등을 통한 초국가적 돌봄 실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허오영숙(2013)과 김혜선(2014)은 결혼이주여성, 김경학(2014)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으나, 여기에서는 이주유형에 따른 구분보다는 초국가적 실천 방식을 범주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터뷰에 응해 준 구술자들의 이주경험에 따르면,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구분을 선명하게 할 수 없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한국의 이주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초기 입국 목적은 노동이나 결혼으로 명확하지만 정착과 적응의 단계에서 이주노동자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결혼이주여성들도 일터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국가적 이주민의 일상을 드러내기에는 입국 당시의 이주유형 자체가 의미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는 송금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실천, 이주민의 모국 방문, 가족·친족의 초청과 연쇄이주, 한국에서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sup>1)</sup>으로 범주화<sup>2)</sup>하여 이주민 일상에서 드러나는 초국가적 실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상의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국경을 횡단하면서 세계경제적 위계에 저항하며 균열을 내고자 하는 방식, 그것을 초국가적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방식,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심리적 거리를 상쇄시키는 방식, 한국에 거주하는 동일한 출신국 이주민들과 유대를 통해 정착과 적응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와 양상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고, 이 연구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sup>3)</sup>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13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초국가적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터뷰하기 보다는 이주민의 이주경험과 배경에 대한 구술내용 가운데에서 관련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한 이주민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방글라데시 2명, 파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2명으로 다양한 편이었다. 그 가운데 여성이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4명이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3명, 30대 4명, 40대 5명, 50대 1명이었다. 입국시기는 대체로 빠른 편이었으며 1990년대 입국자 4명, 2000년대 초반 입국자가 5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이주민들 가운데 능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생산직 3명, 통번역직 4명, 주부 2명, 농사 1명, 영업직 1명, 사업 1명, 자영업 1명으로 다양하였으며, 이주 사회로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이주민들의 직업세계 또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유형으로는 결혼이주민 9명, 노동이주로 입국해서 결혼한 사례가 4명이었고, <표 1>에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다.

- 
- 1) 한국에서 모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이주민 일상에서 드러나는 초국가적 실천방식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공간적으로는 거주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으로서는 여전히 모국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이 드러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 3) 이은정. 2014. “필리핀 여성의 한국 결혼이주경험 - 경북 경산시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8, 이용승·이은정. 2014. “이주민 사회자본과 참여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존』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이은정. 201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 대구지역의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변동』 역사문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2명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구술자에 대한 정보

	이름	연령 / 성별	출신국	입국 년도	이주유형	국적 취득 년도	직업	동거가족	거주 지역	비고
1	투이	27/여	베트남	2008년	결혼	2012년	통번역	부부+아들	영천	
2	김아영	29/여	베트남	2007년	결혼	2012년	주부, 부업	부부+딸 2	영천	
3	팜티언	44/여	베트남	2000년	노동→결혼	미취득	통번역 활동가	부부	대구	
4	주디스	37/여	필리핀	2000년	결혼	2003년	생산직	부부+딸 2, 아들 1	경산	
5	안나	42/여	필리핀	2003년	결혼	2009년	농사	부부+딸1, 아들1	경산	
6	코라	42/여	필리핀	1999년	결혼	2004년	생산직	부부+아들 2	경산	11과 사실혼
7	레이나	41/여	필리핀	2000년	결혼	2012년	주부	부부+아들	경산	
8	리젤	36/여	필리핀	2004년	결혼	2008년	자영업	부부+ 아들 2	경산	
9	이민우	35/남	파키스탄	2005년	결혼	2011년	사업	부부+딸 1, 아들 2	경산	
10	무스타크	39/남	방글라데시	1999년	노동→결혼	미취득	영업직	부부	대구	
11	키림	55/남	방글라데시	1998년	노동→결혼	비자 만료	생산직	부부+ 아들 2	경산	6과 사실혼
12	강선주	29/여	우즈베키스탄	2008년	결혼	미취득	통번역	부부+딸1, 아들 1	대구	
13	김다마라	40/여	우즈베키스탄	1995년	노동→결혼	1996년	통번역	부부+딸 1, 아들 2	대구	

## II. 경제적 차원의 실천 : 송금 및 경제적 지원

이주민들의 초국가적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나 출신국 사회에 보는 송금행위라고 할 수 있다. 송금은 모든 형태의 이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성별이나 체류자격, 체류형태, 숙련 여부 등과 상관없이 출신국에 송금을 한다(Vertovec,

2004; 김혜선 2014, 255 재인용).

방글라데시 출신 키림은 국비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이었지만, 귀국 후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수입이 턱없이 적은 탓에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감행하였다. 평범한 가정의 장남이었던 키림에게는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책무가 있었고, 그 부채감으로 인해 1998년 입국하고부터 꾸준하게 많은 액수(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를 송금 하였고, 덕분에 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동생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첫째는 싱가포르, 둘째는 오만, 셋째는 고향에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 받아 생활의 터전이 다져진 상황이다. 몇 달 전부터 병원생활을 하고 계신 아버지의 병원비는 전적으로 키림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한국에 이주노동 떠나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모국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하며, 이유는 장남으로서 모국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비자 만료 이후에는 더욱 출국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마음이 아파요. 17년 됐으니까. 연락 자주 해요. 주로 전화, 컴퓨터, 휴대폰 하고.(중략) 제가 아빠한테 얘기 했어요. 만약 큰 수술해야 되면은 해요. 돈은 생각하지 마요. 돈은 고생해도 내가 보낼게. 만약 내가 집에 갈 때까지 4~5년 동안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중략) 내가 혼자만 행복하고 내 동생들 불쌍하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너 형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불쌍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내가 형이니까. (중략) 내가 옛날에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 모았어요. 바지도 새로 안사고 구제에서 사고. 옛날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와요. 그래도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면 눈앞에 가족들이 다 행복하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요. (키림, 2014년 3월 22일 인터뷰)

위의 인터뷰할 때만 해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장례식조차 가지 못한 ‘불효’<sup>4)</sup>를 통감하며 연구자에게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다. 장남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국제 이주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을 송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키림의 희생을 발판으로 동생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스타크도 방글라데시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1999년에 입국한 뒤 한국인 부인을 만나 2006년 결혼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자녀는 없다. 이불 영업직을 하고 있는 무스타크는

---

4) 키림이 지금이라도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 남편과 사별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과 3년 전부터 사실상 관계에 있어서 비자 문제로 인해 출국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써 국내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방글라데시로 귀국해서 결혼비자를 받는 것 또한 간단히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렵사리 구성된 가족들과의 헤어짐이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에는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였다. 때문에 선불리 아버지 장례식을 참가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수입이 좋은 편이며, 부모님께 정기적 송금은 하지 않지만 생활비로 넉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보낸다고 한다. 무스타크에게는 마약에 중독된 매행이 한 명 있는데, 조카 3명을 돌볼만한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형편을 타개할 목적으로 가족들이 매행을 카타르로 노동이주 보내려고 기획하였다. 어머니로부터 매행 노동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듣고 무스타크는 송금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주민으로서 적지않은 금액을 형의 노동이주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가 없는 무스타크는 모국에 있는 조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형을 어떤 식으로든 중독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쁘지 않는 방법으로서 형의 노동이주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주민들이 비록 원거리에 있어 대면접촉을 하기 어렵지만,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모국의 가족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점차 다르게 해석되고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가족 전체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송금은 경제적 단위로서 가족의 경계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키림과 무스타크처럼 모국에 지원하는 송금액이 많은 경우는 국경 너머의 가족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국으로의 역이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는 일이기도 하다.

베트남 여성 팜티언도 키림처럼 러시아 유학파인 엘리트였으나, 결혼한 지 4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나서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하자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 노동이주를 선택하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타국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고 한국 정착 초기에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한 터라 일을 하면서도 정기적인 송금은 하지 않았다. 다만, 팜티언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올해 25살이 되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2010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으나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팜티언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을 한국에 유학시키기 위해 160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저축해 둔 상태이다. 선교센터에서 활동가로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현재도 벌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비한다면 저축액은 상당한 것이었다. 집에서 센터까지 꽤나 먼 거리였지만 때론 걸어 다니기도 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아껴가며 모은 돈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이것은 팜티언이 수십 년 동안 아들에 대한 '일상적 돌봄'을 실천하지 못한 댓가로서 마련한 것이었고, 유학을 오게 되면 그간 못했던 돌봄을 수행하고 싶었지만 비자문제로 좌절되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인 투이와 김아영도 정기적인 송금은 하지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투이는 모국 가족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준다고 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병원비 140만원 정도를 송금했다고 한다. 투이는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엄마, 아빠 생각하면 한국사람 하고 결혼해라”고 한 어머니의 억지 섞인 권유에 따라 이주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친정에 송금하자거나 경제적 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투이와 장애를 가지고 버스 운전 일을 하고 있는 남편과의 맞벌이 수입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2013년부터 정규적인 일을 하기 시작한 투이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결혼 비용으로 작년에 약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100만원이 약간 상회하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아껴 몇 년 동안 모은 것이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투이의 어머니는 4년 넘게 일을 하면서 모은 400만원을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한다.<sup>5)</sup> 투이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학습한 한국어 실력으로 통번역 일까지 하게 되면서 비교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고, 모국 가족 지원 또한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송금행위는 주로 남편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적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투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 한국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모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양국에 걸친 초국가적 가족 질서 안에서 만딸과 부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상적 차원의 협상을 유연하게 이루어내면서 초국가적 가족이라는 경계를 새롭게 구성해 내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이의 남편은 처남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들 비행기 왕복 티켓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로 처갓집 잔치 비용에 관한 조율의 수준을 정하였다.

김아영의 경우는 현재 전업주부이면서 SNS를 통해 화장품, 다이어트식품과 같은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 김아영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경우로, 정기적인 송금은 하지 않을뿐더러 송금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편이 일 년에 두 번, 설과 추석명절에 약 50만원씩 송금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던가 할 때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보탠다고 한다. 김아영은 여동생에게 필요한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을 사서 가끔씩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통일교를 매개로 결혼한 초기입국자였기 때문에 남편의 사회적 위치가 낮은 경우가 많았고 시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서도 배제된 집단이었다. 이들은 최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송금행위 자체를 실천하기가

---

5) 베트남에서는 결혼식 비용 전체를 남자 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고 하며, 투이는 울케 될 사람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쓴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리젤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적으로 송금을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결혼 이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다가 최근 파키스탄 남편과 재혼해서 아시안 마켓 종류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수입이 안 되서 생계 자체가 궁핍하고 게다가 원룸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만한 여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끔씩 부모님께 20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데, 필리핀 가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와서 곤란한 지경이라고 한다.

안나의 경우는 남편과 시댁이 과수농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 필리핀 집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송금을 한다. 필리핀 가족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낼 필요는 없고 어머니가 수술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가 친구로부터 땅을 샀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 남편한테 부탁해서 100만원을 송금해주었다. 남편은 더 보내자고 했지만 안나는 “우리 가족도 돈이 없는데 더 보낼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정리를 하였고, 그 땅은 필리핀 가족들이 코코넛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안나의 남편은 노후에 필리핀에서 살 생각도 있고 아이들 유학을 보낼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 가족들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편이었다.

### Ⅲ. 모국방문과 역이주의 탐색

오늘날의 국제이주는 물리적으로는 한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지만, 심리적 유대의 차원에서는 여러 국가에 걸쳐 귀속감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끼리 직접 대면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밥 한끼를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비교가 불가한 지점이다. 무엇으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가장 큰 고통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현실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여성 투이는 같은 출신국 여성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들로 구성된 이중 언어 연극반을 만들었고 2013년 전국·경북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대회에 출전시켜 수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5명의 아이가 나가서 600만원이라는 큰 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투이는 이때 받은 수상금으로 2014년에 아들, 남편과 함께 베트남 고향을 다녀왔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투이의 대학교 졸업여행과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던 관계로 베트남을 모두 3번이나 다녀왔다고 한다. 2008년에 입국한 투이는

지금까지 총 9번의 모국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방문은 임신 직후에 시댁식구들의 권유로 갔다 온 것이다. 출산 이후에는 한동안 모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결혼의 특성 상,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비교적 잦은 모국 방문의 의미는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투이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있어서 아들에게 짬 날 때마다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남동생 결혼식 차 고향 방문을 했을 때 투이의 아들이 뜻밖에 베트남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고 한다.

준서 지금 베트남 말 잘 해요. 지금은 준서 베트남 말 대화 다 알아들어요. 우리 동생 결혼식에 2주 만 있었는데 베트남 말 완전 늘었어요. 그 전에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같은 짧은 단어만 말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한 문장 한 문장 하는 거예요. 엄마 일 도와주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베트남 말 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말 하고 있어서. 베트남 친구들한테 니는 이거해라 하면서 시키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투이, 2015년 4월 9일 인터뷰)

투이의 7살 된 아들은 이중언어대회 수상경험도 있거니와 베트남어 구사능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또 베트남 가족들을 매우 좋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이번 모국 방문을 계기로 투이는 베트남으로의 역이주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혼이주 당시에 모국으로의 역이주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주 이후 한국사회 내에서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인지되면서부터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투이 부부의 노후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영토로서 베트남이 보다 적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여성 김아영의 경우는 최근에 약 10일간 혼자서 모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2007년 입국 후 총 3번의 모국 방문이 있었고, 이번은 6년 만에 다녀온 것이라고 하였다. 투이와 마찬가지로 첫 모국 방문은 임신 이후에 다녀온 적 있다고 한다. 이번 모국 여행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만류한 것도 아니었다. 김아영의 부재로 인한 가정 내 역할의 공백은 시어머니가 매일 방문해서 대신 메꾸어 주었다고 한다. 작년에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초청했지만 불발되면서 이루어진 여행이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모국 방문 자체가 특별히 부각될 필요가 없는 사례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 앞서 말한 바 있는 키림의 경우는 1998년 입국 후 단 한 번의 고향 방문도 하지 못한 경우인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로 18살 되는 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이주 떠나올 당시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전혀 지켜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키림의 노동이주로 인한 장기 부재가 원인이 되어 몇 년 전 부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키림 또한 한국에서 새로운 파트너인 필리핀 출신 여성과 재혼하게 된 것이었다. 한국의 키림 가족은 적어도 3개국에 걸쳐 구성된 가족이고, 방글라데시 키림 가족은 싱가포르와 오만에 거주하는 동생 가족을 포함한다면 5개국에 걸쳐 구성된 '초국가적 가족'인 것이다. 키림과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은 간절하게 가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 간절하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역설적으로 교차·공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키림의 현재 부인인 코라도 10년째 모국 필리핀에 가지 못했는데, 이유는 전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심에 따라 두 아들의 양육을 오로지 혼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키림이 경제적으로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룸에 살고 있는 현재로서는 모국 방문을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형편은 닿지 않는다. 코라도 두 아들이 10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물 비용 포함해서 적어도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었다.

필리핀 출신 안나는 2003년에 입국한 후 필리핀에 3번 다녀왔는데, 몇 년 전에는 엄마가 수술을 하게 되어 가족 모두 함께 간 적이 있고 작년에 오빠 2명이 급사를 했지만 농번기라 장례식에 참가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8남매의 막내인 안나가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갈 예정에 있다. 필리핀 가족 모임은 8남매가 주축이 되어 매년 12월 29일에 부모님 댁에서 모여서 며칠 동안 함께 즐기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이 안나가 주최할 순서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번 마다 비용도 각출하고 불참자에게는 벌금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족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주민들이 모국의 가족들과 초국가적인 계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물론 필리핀에 좋은 땅이나 집이 나오면 사고 싶어 하는 안나 남편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남편이 부인의 모국 가족의 자원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투이와 안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국방문의 횟수와 이유가 이주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무스타크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 모국 방문의 조건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갈 만한 형편은 못된다. 몇 년 전 모국 방문의 이유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에 요양 차 갔던 것이고,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치료 받기 어려워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피부색을 이유로 들어 처갓집에서는 무스타크를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 깊숙한 관심이 있다. 한국 생활이 무척 좋아서 떠날 마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에서 죽고 싶은 마음 또한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다면 부인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고민스럽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로서는 모국으로의 역이주 여부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지만, 노후와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선택을 할 만한 계기가 촉발된다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모국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 출신 주디스가 그렇다. 주디스는 경산필리핀공동체 리더로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표하여 한국사회와의 접촉에서 적극적인 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백일 갓 지난 아이를 주디스가 필리핀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모국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국 왕래를 할 수 있는 주디스가 그렇지 못한 아이의 부모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이들은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과 유사한 정도의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가족초청과 연쇄이주

이주민들이 모국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가족초청이 송금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초청이 자유로운 결혼이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송금보다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이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초청은 이주민들이 모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을 주는 방법일뿐더러 원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친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투이의 베트남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이고 투이 집 인근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근무한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집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부업을 하고 있다. 이 주택에는 투이 부모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투이 베트남 친구의 부모님도 이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친구의 어머니도 투이 어머니와 같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월세 보증금 200만원은 투이가 대신 내주었고, 월세 20만원은 각 가정에서 반반씩 내고 있다고 한다. 투이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분가하여 거주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투이를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입국하였던 것이다. 투이의 아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차에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공장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투이의 아버지까지 초청한 것이다.

투이의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집에서도 베트남 사람들 끼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국사회와 접촉할 일이 없다고 한다. 한국사회와 접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이미 한국인이 된 투이를 통하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국 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일은 별로 없는 편이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투이의 어머니는 앞서 말했듯이 아들 결혼식 비용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투이의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을 하면서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배도 한 척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일은 작년에 결혼한 남동생 부부가 도맡아 하고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있는 농장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으로의 역이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 투이로서는 모국 가족의 경제활동을 도우는 것이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투이의 경우에는 경제적 협력과 연대의 단위로서 모국 가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 시부모의 부재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투이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댁이 부재하게 된 것은 떠나온 모국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봐야할 것이다.

베트남 여성 김아영의 경우도 현재 남편, 딸 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약 4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오셨다가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가셨고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시게 된 것이다. 김아영의 아버지는 투이 어머니와 같은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잔업이 많지 않는 일이라 약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김아영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비를 내고 있고 부인에게는 200달러씩 정기적인 송금을 한다. 남은 돈의 일부는 한국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용돈으로 쓰고 있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대개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투이, 김아영을 비롯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들로서 딸의 초청으로 입국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함께 모국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 여성들이 같은 출신국 끼리 보다 결속력이 강화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좁은 아파트에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지도 몰라 김아영은 아버지 집을 따로 구해드릴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은 주거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저축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만류했다고 한다. 김아영은 결혼 당시에 농촌지역에 위치한 시댁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몇 년 후 시내로 분가하였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동거도 남편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필리핀 이주여성 주디스의 어머니는 오래 전 돌아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한번 초청한 일이 있었다. 주디스의 아버지는 단지 딸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녀갔는데, 주디스는 이를 두고 후회를 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어서 직업을 적절하게 못 구하는 남편과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경산에서 필리핀 출신으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던 주디스는 최근에 어린이집 영어교사를 그만두고 공장에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였고, 남편은 여전히 특별한 직업 없이 주디스의 공적·사적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양 꿈바우시장에는 아시아 각국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주디스는 남편과 함께 필리핀 음식 부스를 맡아 자영업을 준비 중에 있다. 주디스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부스 운영을 위해 아버지를 초청하였고 6월에 입국 예정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입국하게 되면 주디스는 필리핀 음식 부스를 맡길 예정이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함께 집중해 볼 계획에 있다.

당초 계획으로 주디스 아버지는 미국인과 결혼한 여동생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문제로 여동생의 출국이 미루어지자 가족들의 연쇄이주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국으로의 이주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두고 주디스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여 일을 도와주기로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필리핀 길거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이고 이곳을 찾을 손님들도 대부분 필리핀 사람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적은 편일 것이다. 주디스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국의 가족을 동원하여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미국 이주가 불발로 이어진다면 한국에서의 부양까지도 고려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모국 가족의 활용과 그에 따른 책임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국 가족의 초청에 따른 연쇄 이주가 단기적 현상에 그칠지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정을 할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연쇄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인 강선주와 김 다마라, 코라의 경우가 해당된다. 강선주는 모국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탓에 하나 뿐인 언니가 먼저 한국으로 결혼이주 하였고 뒤따라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아이가 둘을 출산할 때 마다 산후구완은 모두 어머니를 초청하여 맡겼으며 향후 합당한 조건을 구비해서 함께 살고 싶은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이주정책이 수용적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강선주의 외삼촌도 방문취업 비자를 획득하

여 입국 후 일을 하고 있다. 김 다마라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서 결혼을 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모두 정착한 사례로서 연쇄이주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 여성 코라도 한국으로 결혼 이후 언니와 조카의 결혼이주를 도와주었고,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명절이 되면 함께 모이는 가족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이주민들에게 가족의 연쇄이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가족 초청에 따른 연쇄이주라는 연결고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출입국관리정책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교적 모국 가족의 결혼이주는 입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용이한 방편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다른 이주민과 비교했을 때 한국 입국과 정착이 매우 수월한 조건이다. 제도적 차원에 대한 고려 외에도 먼저 정착한 이주민이 구성한 가족의 구조, 경제적 수준 등도 연쇄이주를 촉발하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V. 한국에서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이주민들이 입국 이후 정착의 과정에서 경험하기 쉬운 문화적 차이와 부적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히려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부터 정부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듯한 정치적 수사를 구사했지만, 정책과 그에 따른 실천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오히려 동화주의적 방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주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방식의 하나로서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주디스 외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참가하고 있는 경산 필리핀 공동체는 KFCSA (Kyeongsan Filipino Community and Sports Association)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는데, 경산지역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약 2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12년에 결성되었다. KFCSA는 매년 여름 농구리그전을 개최하여 필리핀 출신 이주민에게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 필리핀 문화의 날', '필리핀 전통공연 및 간담회' 행사를 대구·경북 필리핀유학생모임(PIKO)과 공동주최하기도 하였다(이용승·이은정 2014, 50~51).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KFCSA라는 공식 조직과 별개로 자조모임을 부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가 해온 모국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주여성 각자가 경험한 적응이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거리 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공백을 서로가 채워주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감정적 차원의 유대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코라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방황했을 때 주디스가 상담을 해주는 식의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교류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마일라는 매번 농구경기 열릴 때 마다 집에서 만든 아이스바, 빵, 젤라틴과 같은 필리핀 음식과 채소를 가져와서 출신국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일라는 주말이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집결하는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 가서도 가끔 판매를 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은 소자본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이며, 수익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마일라가 생산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모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마일라는 KFCSA의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회장인 주디스와의 친분 또한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일라는 한국 정착 기간은 오래되었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저조해 적응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KFCSA 활동과 출신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젤과 레이나의 경우도 경산지역에서 일종의 아시안 마켓을 운영<sup>6)</sup>하고 있었으며, 이곳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이주민들에게 각각의 모국 음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마켓에 대한 지분이 많았던 레이나 또한 마켓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KFCSA 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객으로서 필리핀 출신 이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 농구리그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모국 공동체 활동에 개입하면서 거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자신의 적응단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민우의 경우는 중장비 관련 무역을 하는 파키스탄 출신자로서 동생을 초청하여 자신의 일을 돕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파키스탄 출신자들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이들의 고충을 들을 기회가 많고, 따라서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더러

---

6) 리젤과 레이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레이나는 아시안 마켓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있다. 인터뷰 도중에 기도를 드리러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은 두터운 신앙심을 가진 인물로 느끼게 하는 장치로 작용되었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었다.

투이와 김아영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자조모임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생일을 빠짐없이 챙겨주곤 한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이 모임은 외식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모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때도 있으며 주로 남편이나 자녀는 동반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투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국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주민에 속한다. 지역의 전문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했고 지금은 다문화 관련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서 재학 중에 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베트남으로의 역이주를 꿈꾸고 있는 투이는 아들에게도 이중 언어 교육을 시켜서 대회 출전을 통해 수상의 경험을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투이와 아들은 베트남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베트남다운 것'들이 가지는 힘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만 안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꿈꾼 적 없는 역이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기 시작하게 되고,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인 강선주와 김 다마라는 한국어와 러시아의 구사능력이 뛰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둘 다 통번역 일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이주민 가운데서 극소수에 속하는 편으로,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로는 통번역 관련 구직활동을 하면서이다. 최근 들어 대구지역 고려인 모임을 공식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김 다마라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조언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초기 적응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모국의 자원들은 매우 필요한 적응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VI. 맺음말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상정되는 '올바른' 정착의 방식은 사회적응을 통한 통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표방한 것은 '다문화' 사회였지만, 그 실재를 구성하고 추동하는 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이주의 역사가 일상적 경험의 차원에서 누적되고 있는 오늘날, 이 글에서는 이주민의 적응 방식의 하나로서 초국가적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주민은 영토적으로는 한 국가에 귀속될 수 밖에 없지만, 경제·사회·심리적으로는 양 국가에 걸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이주현실의 일반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인 적응과 부적응, 통합과 비통합과 같은 단일하고 이분법적인 잣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 일상에서 드러나는 초국가적 실천의 방식으로 송금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실천, 이주민의 모국 방문, 가족·친족의 초청과 연쇄이주, 한국에서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자면, 경제적 지원과 모국 방문과 같은 실천방식은 이주민의 초국가적 가족경제에 대한 의미를 되묻는 과정이었으며, 더 나아가 역이주의 탐색이라는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인터뷰한 이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자면, 비록 원거리에 있어 대면접촉을 하기 어렵지만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모국의 가족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점차 다르게 해석되고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가족 전체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송금은 경제적 단위로서 가족의 경제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키림과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은 간절하게 가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 간절하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역설적으로 교차·공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투이와 안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국방문의 횟수와 이유가 역이주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민들이 모국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가족초청이 송금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초청이 자유로운 결혼이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송금보다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이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초청은 이주민들이 모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을 주는 방법일뿐더러 원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친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투이, 김아영과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국의 부모들은 초청으로 입국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함께 모국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같은 출신국 끼리 보다 결속력이 강화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필리핀 여성 주디스의 경우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국의 가족을 동원하여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이것은 모국 가족의 활용과 그에 따른 책임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입국 이후 정착의 과정에서 경험하기 쉬운 문화적 차이와 부적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히려 모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각자가 경험한 적응이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거리 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공백을 서로가 채워주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감정적 차원의 유대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마일라와 레이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주민들은 모국 공동체 활동에 개입하면서 거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자신의 적응단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베트남으로의 역이주를 꿈꾸고 있는 투이는 아들에게도 이중 언어 교육을 시켜서 대회 출전을 통해 수상의 경험을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투이와 아들은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베트남다운 것'들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체득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 구본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19(2). 5~51.
- 김경학. 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남아시아연구』20(2). 25~57.
- 김현미, 2014. “송금과 사랑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만들기-”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파주: 돌베개.
- 김혜선, 2014.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용승 · 이은정. 2014. “이주민 사회자본과 참여에 관한 연구 : 대구 · 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존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39~68.
- 이은정. 2014 a. “필리핀 여성의 한국 결혼이주경험 -경북 경산시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8, 48~73.
- 이은정. 2014 b.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대구지역의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변동 - 역사문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55~71.
-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송금, 가족초청, 물품제공-』파주: 한울아카데미.
- Barsh, Linda,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Basel: Gordon and Breach.
- Portes, Alejandro, Luis Guarnizo and Patricia Landolt.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 217-237.
- Vertovec, Steven. 2004. “Migrant Transnationalism and Modes of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970-1001.

● 투고일: 2015. 5. 4.    ● 심사일: 2015. 5. 6.    ● 게재확정일: 2015. 5. 15.

**Transnational strategies of migrants in everyday life  
- With focus on migran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

Lee, Eun Jeong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takes a note of the fact that immigrant workers and foreign married and immigrated women that are typical forms of immigration in Korea are more closely communicating and interchanging with their homeland than anticipated, which plays a meaningful role in living in their newly settled country. Today when the history of immigration is turning into everyday life experience, this study has unfolded its debate with focus on transnational strategies as part of adaptation of immigrants. Immigrants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elong to a single country in territorial aspect but are, in reality associated with both countie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Therefore, this debate is also intended to raise issues with dichotomous standards, or views that are prevalent in Korean society, such as adaptation and maladaptation and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is paper has looked into a predefined scope of conducting transnational strategies among immigrants that includes economic activities such as remittances, immigrants' visit to their homeland, invited immigration of family and relatives and chain migration and the way of utilizing homeland's resources in Korea.

**<Key words>** Remittances, Adaptation, Chain Migration, Return Migration, Transnational Strategies, Transnationalism from Below